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지역경제 판 바뀌 전주 대변혁”

우범기 시장 취임 1년

▶ 관련기사 16면

3대 핵심전략 등 담긴  
경제산업 2030 비전 제시  
일자리 5만개 창출  
465개 기업유치 등이 핵심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생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꿔 청년이 찾아오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내놓았다.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3354,000억원의 예산을 대거 투입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 465개와 혁신창업 1625개를 목표로 전주 경제의 규모를 키워 동아시아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을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우범기 시장은 5일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기 전주시는 전주 대변혁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전주 미래 천년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겠다는 일념 하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전주 대변혁을 위해서는 전주 경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주 경제의 판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전주 경제의 판을 확! 바꾸겠습니다'를 비전으로 청년이 머물고 미래 신산업이 역동하는 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한 도시·산업·경제의 3대 핵심 전략과 11개 정책과제 중심의 '경제산업 2030 비전'을 제시했다.

3대 핵심 전략은 △도시의 틀을 바꿔 활기찬 전주로 변화합니다(도시)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산업의 판을 바꿉니다(미래) △경제의 꽃을 피워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합니다(경제) 등이다.

또 이를 위해 △유류부지 민간투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업 재생 △권역별 특화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창업도시 △청년전주 △인재양성·일자리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위한 11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우범기 전주시장이 5일 전주혁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계획이다. 먼저 도시 분야의 경우 시는 잡자는 유류부지를 기업이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강하고 젊은 기업이 모이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의 틀을 바꿔 활기찬 전주로로의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의 경우 시는 탄소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수소 저장용기 특화도시 조성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이루내고, 새로운 미래먹거리가 될 신산업발굴 및 기업 유치, 창업지원 등을 통해 전주의 미래를 앞당길 산업의 판을 바꿀 계획이다.

끝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일지리를 만들고, 핵심 인재 양성·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3대 첫 걸음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보증 1,200억원 지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하이테크 중심 신규 산단 조성 △2024년 CES(세계가전전시회) 참가 드론 축구 시범경기 추진 및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성공 개최를 우선 추진해 전주시 경제산업 2030 비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주의 대변혁과 강한 경

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역대 최고치인 1조 9,055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첫 단추인 야구장 철거를 완료했으며, 지어진 지 42년 된 전주역사를 전주의 관문이자 상징에 걸맞게 새로 짓는 사업에 착수하는 등 해묵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다.

또한 △왕의궁원 프로젝트 △전주 원주 상생협력사업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으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민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사전협상 운영자치를 수립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통해 도시의 틀을 바꾸고 경제의 판을 바꿔 세계적인 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꿈꿔온 전략과 철학, 체계를 구축해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기 전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다시 우뚝 설 날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 시민이 모이고 활기찬 전주, 잘 사는 전주를 만들어 기필코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익기 기자

### 새민금잼버리 영내·외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2023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4S+ACT' 총 5가지 운영방침에 따라 다양한 영내·외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부시크래프트, 개척물 만들기, 라디오스카우팅, 화랑어워드, 잼버리를 찾아라, 드림 메릿 배지, 오리엔티어링, 드론 등 체험 중심의 48종 143개 영내 프로그램과 수상활동, 숲밧줄, 해양활동 등 8종 30여개의 다양한 영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어, 한옥마을 한옥 스탬프, 왕궁리 유적지 야행 등 전북지역의 14개 시·군의 자연,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이 200여개의 다양한 과정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끼를 펼치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실현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세계 스카우트 대원에 '전북의 매력' 알린다

사전·사후 관광, 농촌체험휴양 등 재방문 유인  
'스카우트의 밤' 열어 참가국 간 국제교류의 장 마련  
도, 잼버리 전 과정 사진·영상 기록... 유산화 착수

전북도는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북의 맛과 멋,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스카우트의 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체험'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먼저,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은 행사 참가를 위한 사전 입국자와 행사 후 잔류하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18개(사전 1Q 사후 8) 코스 4박 5일간 관광프로그램(참가자 비용부담)이다.

현재 신청자는 벨기에 2333명을 비롯한 17개국 7,722명으로 인천공항 전용 웰컴데스크를 통하여 투어 어가이드와 함께 주관여행사 제공 전용버스에 탑승해 부어를 시작하게 된다.

전북과 서울을 포함한 맛집 탐방, 한류문화 체험,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사기행, 힐링프로그램 등 잼버리 행사 전·후로 전북 곳곳을 누리면서 전북의 맛과 멋, 문화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숙박하는 사전·사후 참가 대원들(5,540명)에게 전북만의 전통문화 체험, 전통 공연 제공과 도내 청소년(500여명)과의 국제 교류의 시간 마련을 위해 '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대 하림미술관, 원광대 문화체육관, 우석대 아트홀, 전북대 체육관 등 도내 대학교 5곳에서 7월 30~31일 사전 8월 12~13일 사후 총 9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넷워킹 프로그램(캠프파이어)을 통해 참가국 간 국제 교류의 시간을 제공한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주대 하림미술관, 원광대 문화체육관, 우석대 아트홀, 전북대 체육관 등 도내 대학교 5곳에서 7월 30~31일 사전 8월 12~13일 사후 총 9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넷워킹 프로그램(캠프파이어)을 통해 참가국 간 국제 교류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에서 사용되는 민박 개념인 HoHoHome

Hospitality) 프로그램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체험도 마련했다. 전주 원색명화마을, 익산 산들강 용포마을, 임실 치즈마을 등 30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1,000명(사전 500, 사후 500)의 외국 스카우트대원들이 2박 3일간 숙박하면서 마을별 특색있는 농촌문화를 체험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 스카우트 대원들 맞이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발굴, 인력(통역·홍보) 확보, 안전 매뉴얼, 특이식 준비, 스카우트 굿즈(왕건, 패지) 등을 마련했다.

마을에서는 모처럼 대규모 외국인 방문객들의 체류로 기대감에 차있으며, 친절한 응대와 서비스 제공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을을 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3 새민금 제25회 스카우트잼버리 행사의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 기록으로 담은 잼버리 유산화 사업을 착수한다.

사전·사후 관광,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문화체험을 포함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영내·외 과정활동과 특별활동프로그램 등 활동 전반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기록화 하며, 전북도의 관점에서 우리도 특성을 살려 잼버리 백서와 차별화 할 예정이다.

잼버리 영상제작은 행사 영상, 영외과정활동(지역성 반영) 홍보영상, 타임랩스 숏폼 콘텐츠 등 메인영상 40편, 서브영상 50편을 제작한다.

잼버리 사진 제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 전문사진작가들이 촬영을 담당하며, 주요행사 및 영내외 과정활동 등 세계잼버리로 활기를 띤 시군의 세계잼버리 사진에 담아낸다. /김재훈 기자